

 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 도 자 료</h1>	2016. 9. 12(월)	
		작 성 문 의	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과장 정동혁 / 사무관 이현희 (Tel. 044-200-2239)
* 엠바고 : 9.12(월) 11:30(행사종료) 이후 사용			

추석연휴 철도 안전운행과 돌발사태 대응에 만전 기해야

- 황교안 총리, 추석연휴 대비 철도 특별수송대책 점검하고 역무원들 격려

□ 황교안 국무총리는 9월 12일(월) 오전 대전 소재 동 한국철도공사 철도수송대책본부와 대전역을 방문하였다.

* (참석) 국토부 2차관(최정호), 한국철도공사 사장(홍순만) 등

○ 이번 방문은 본격적인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원활하고 안전한 철도운행을 위한 특별수송대책을 점검하고,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는 철도공사 직원 등을 격려하기 위해 추진되었다.

□ 황 총리는 철도 특별수송대책 보고를 받기에 앞서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언급하면서,

○ 이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서 우리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행위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,

○ 우리 국민이 단합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하고,

○ 특히 모든 철도 관련 종사자들은 핵심 국가기간시설인 철도 시설과 설비 등의 안전 관리에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하였다.

- 또한, 추석연휴대비 수송대책과 관련하여 사상 최대인 300만명 이상이 금번 연휴기간동안 철도를 이용할 것임을 언급하면서,
 - * (2015년 추석) → 256만명, (2016년 설) → 290만명, (2016년 추석) → 306만명
 - 예방정비 강화, 열차정시운행, 질서유지 등 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국민들이 철도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,
 - 안전운행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취약지점 사전점검, 위기상황별 대응요령 숙지 등 안전운행 확보와 돌발사태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고,
 - 추석 특별수송기간 마지막 날까지 '내 가족의 귀성길을 보살핀다'라는 마음으로 비상근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
- 이어 황 총리는 특별수송대책본부내 운영상황실에서 철도 관제상황 등을 점검한 후 대전역으로 이동하여,
 - 역무실, 매표소 등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연휴 기간 동안 질서유지, 쾌적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,
 - 대합실로 나아가 열차를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과 추석명절 인사를 나누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.

- 한편, 정부는 추석연휴기간동안 철도분야는 물론, 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교통관리 비상체제를 운영할 계획인바,
 -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(국토부, 국가교통정보센터)를 중심으로,
 - △해수부 대책본부 △도공·철도공사 대책본부 △인천·한국공항공사 대책반 △버스연합회 등과 핫라인을 구축,
 - 교통상황에 대한 정보공유는 물론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협력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.

- ※ (붙임) 1. 추석 연휴 철도 특별수송대책
 2. 철도공사 철도수송대책본부
 3.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

□ 개요

- 기간 : '16. 9. 13.(화) ~ 9. 15.(목, 추석) ~ 9. 18.(일), 6일간
- 열차운행횟수: 평시 보다 343회 (일평균 58회, 9.3%↑) 증편, 총 4,026회 (일평균 671회)
 - KTX : 평시 보다 189회 (일평균 32회, 12.3%↑) 증편, 총 1,720회 (일평균 287회)
 - 일반열차 : 평시 보다 154회 (일평균 26회, 7.2%↑) 증편, 총 2,306회 (일평균 384회)
- 수송목표 : 3,058천명 수송(일평균 510천명)
 - KTX : 1,393천명 수송(일평균 232천명)
 - 일반열차 : 1,665천명 수송(일평균 278천명)

□ 대책본부 운영

* 정부 특별교통대책본부 운영기간(일시)과 동일

- 기 간 : '16. 9. 13.(화) 09시부터 ~ 9. 15.(목, 추석) ~ 9. 18.(일) 24시까지
- 근무인원 : 연인원 1,010명 (일평균 168명-본사 71명, 지역본부-97명)
 - ※ 지역본부는 자체 계획에 따라 대책본부 설치·운영, 비상연락체계 유지

□ 안전확보 대책

- 추석 특별수송기간 전 사전 예방정비·점검 및 확인 완료 조치
 - * 중점안전관리 대책수립(안전본부) → 분야별 대책 실행(사업부서, 지역본부) → 최종점검(지역본부)
- 이례사항 대비 본선 고장열차 대체 편성 및 사고복구용 장비 배치
 - * KTX 1편성 20량(오송), 무궁화호 2편성 12량(대전조·익산), 동력차 15개소 15량 배치
 - * 사고복구용 장비 기중기 11대, 유니목 14대, 재크키트 26대 전국 24개역 배치

□ 역·열차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

- 역·열차 특별 안전점검 - 8.29.(목)~9.9.(금), 전국 37개 역·소(역 28, 열차 9)
- 여객이동통로, 자동발매기 등 질서유지 요원 배치
- 철도사법경찰 및 경찰서,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
 - * 철도경찰 특별방법대책 상황실 운영(장소 : 철도경찰대 수사과)
- 열차승무원 차내 순회 강화 및 입석객 분산 유도 안내방송 시행

□ **설비 현황 : 종합운영상황실**

- (면 적) 4층 전체(5688.28㎡), 예비관제실(1,120㎡)
- (관제시스템) 관제콘솔 32개, 대형표시반 36면, CTC서버 8식 등
 - * 대형표시반은 이례사항 시 해당구간 선택하여 표출이 가능하도록 가변형
- (정보통신) 광전송설비, 관제전화 운용장치, 열차무선 및 영상설비 등
- (SCADA) 모니터 7대,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2대, 서버 및 컴퓨터 등
 - ☞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가 지진·테러·피폭 등으로 열차통제 불능 시 제어권을 받아서 열차통제 등 관제기능 수행

□ **대책본부 운영**

○ **조직도**



* 7개의 전문분야가 본사4층(구로센터)에서 24시간 상시 합동근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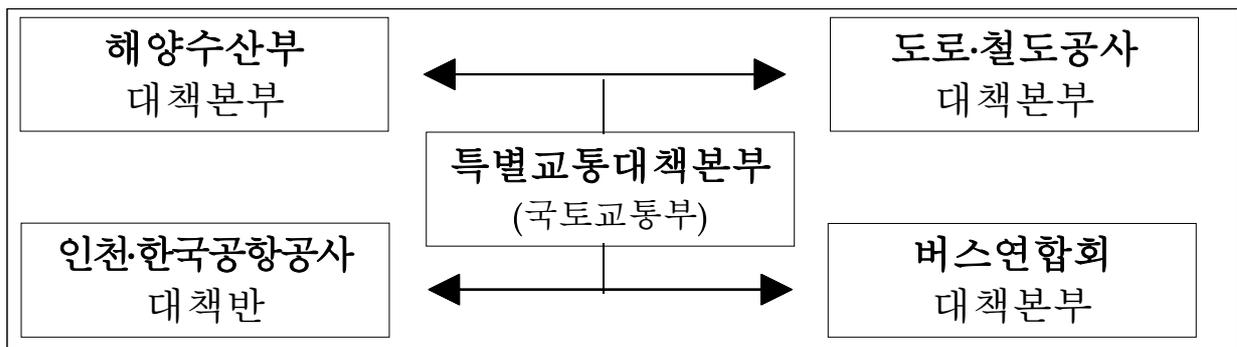
○ **주요업무**

- 분야별 상황을 종합하여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한 수송 지원
- 사고·장애 등 이례사항 발생시 효율적인 수습·복구를 도모
- 각종 대수송, 파업, 기상이변, 사고, 테러, 화재 등 정상운행 곤란 시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

붙임 3

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

- 운영기간 : 9.13(화) 09:00 ~ 9.18(일) 24:00(총 6일간)
- 운영장소 : 국가교통정보센터(국토교통부, 6층 660호실)
- 특별교통대책본부 구성
 - 본부장 :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
 - 근무반 : 상황실장 및 필수요원, 파견요원(총 141명)
- 주요 임무 : 상황관리 핫라인 및 화상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정보교환
 - 국토교통부 정부합동대책본부와 도로공사, 철도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공항공사, 고속버스조합 대책본부와 핫라인 구축
 - 각 기관의 특별교통대책 상황보고 및 지시
 - 교통현황 파악 및 조정, 긴급사태시 즉각 조치 등



- 철도분야 소속기관 및 관련기관 대책본부
 - 철도특별사법경찰대 : 지방경찰대별 특별수송상황실 운영
 - 한국철도공사 : 본사 종합관제실, 지역본부(12개) 대책반 설치·운영